

## 어떤 아버지와 두 아들

누가복음 15,11-32

### 1

누가복음 15장 11-32절까지는 예수가 말한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떠하며 동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하에 있기를 원치 않고 자기의 상속받을 것을 찾아서 먼 외국으로 갔는데, 그는 거기서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학대와 굶주림과 헐벗음에 지쳐버린 이 아들은 더 다른 살 방도가 없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결심한다. 그러나 그는 그이상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종으로 받아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를 맞아들여 입을 맞추고, 새 옷을 갈아 입히고, 잔치를 베풀며, 죽었다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뻐한다. 그때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던 맏아들은 이 광경을 보고 질투를 느낀다. 그는 아버지에게 항의하기를 나는 지

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아들의 임무를 다 지켜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 즐기게 한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에게 이게 웬일이냐고 대든다. 이에 대하여 그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난 자식 위해 즐거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응수한다.

이 이야기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다. 둘째 아들의 경우, 아버지의 경우, 맏아들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비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한 말씀인지를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독자는 이 셋 중에 어느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이 듣는 자의 입장은 바로 이 맏아들의 입장이다. 이 이야기 중의 사건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맏아들이며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 할 말이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경우를 하나 하나 검토해 보자.

## 2

둘째 아들의 경우: 둘째 아들은 “내게 올 분깃을 주시오.” 즉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주권에서 자유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권리, 의무의 입장에서 보아 자기는 자유를 찾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아버지는 이 권리를 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말은 그는 아버지와 사랑을 중심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의 주장은 권리에서의 자유를 의미했고 인격적인 자유는 아니다.

언제나 “무엇에서의”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를 결정한다. 사람들은 자유, 자유하나 무엇에서의 자유와 무엇을 위한 자유를 원

하는가가 뚜렷치 않기 때문에 비극을 가져온다. 이 아들은 인격적인 독립을 의미한 자유를 찾으려는 것보다 “내 것은 내게로,” 즉 권리를 위한 자유다. 이 말은 그는 권리와 의무의 세계에서 살기를 결단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얻은 그 자유의 결과는 뻔하다. 그는 우선 그 받은 권리, 즉 나누어 받은 제물로써 향락했다. 그의 향락은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향락이었다. 그런고로 돈이 있는 동안만은 향락할 수 있으나 돈이 없으면 더 요구할 권리가 없는 삶이다. 사실상 그가 돈을 다 쓰고 살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했다. 그는 돼지치기를 했는데 돼지의 먹는 것까지 부러울 정도로 굶주렸다. 그 까닭은 그냥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16절). 권리와 의무의 질서에 자기 길을 결정했으니 “거저 주는 것”은 기대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는 그때 아버지 밑에 있을 때 풍족하던 삶을 생각한다. 아버지에게로 가자. 그러나 이 마당의 그는 아버지를 떠날 때의 그가 이미 아니다. 권리를 주장하던 자기는 이미 파손되고,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할 수 없게 된 자기를 안고, 아버지의 사랑과 혜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안고 돌아간다. 이런 뜻에서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받을 것을 감당 못하겠습니다”(19절)라고 한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참 모습이다. 내 권리 주장의 입장에서 그저 받는 은혜의 세계로 돌아감이 곧 회개인 것이다.

아버의 경우: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왔다(20절). 이것은 유대 세계에서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다. 유대에 있어서는 동양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마중나가는 예가 없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예를 파괴할 만큼 사랑에 차 있다.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것은 최대의 애정의 표시이다.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을 신겼다. 이것은 모두가 용서와 더불어 아들의 명분을 도로 주는 표시이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풀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한다. 이것은 그의 아들의 명분을 천하에 공포함과 동시에 과거의 모든 죄를 속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것이 아버지가 아들의 과거를 전혀 불문에 붙인다는 일과 어떠한 속죄 행위도 아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아버지는 그저 돌아온 아들을 기뻐할 뿐이다. 이 아버지는 권리의식을 포기한 그에게 아들의 권리를 무조건 도로 주었다.

만아들의 경우: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온 만아들은 이 광경을 보고 분노를 느낀다. 질투? 그렇다. 그러나 그 질투 뒤에는 “정의감”에서 오는 분노가 있다. 그것은 권리—의무의 질서를 파괴하는 아버지의 “불의” 때문이다. 즉 권리분배의 불균형에 대한 반항에서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 아들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이 같은 그의 불평은 아버지의 “불의”에 대한 항의이다. 그러나 이 만아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도 아버지를 떠날 때 둘째 아들처럼 권리와 의무의 질서에서 아버지와 관계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기의 한 일에 대한 공포의식이 폭로된 것이다. 즉 나는 당신을 위해 이만큼 수고한다. 그러니 그만한 권리가 있는 것을 보류하고 있었다는 자기 주장이 드러났다.

그는 일생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복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율법적인 복종이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섬겼다면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자기 의식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면 할수록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처럼 참섬김은 바로 섬기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해야 참일 것이다. 결국 이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둘째 아들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더불어 기뻐할 수 없었고, 돌아온 동생에 대한 기쁨보다 오히려 멸시와 분노가 앞섰다.

아버지는 그 만아들의 “정의론” 자체를 시비하는 대신 전혀 딴 입장에서 그 만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32절) 이 아버지의 말은 이 비유의 핵심인데,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물음이 된다. <무엇이 너로 하여금 죽었다 돌아온 네 동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또 아버지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할 수 없는 네가 명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이 아버지의 말은 만아들의 불평을 심판하고 있으며, 그 아버지가 어떠한 이심을 밝힌다.

### 3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의 경우는 흡사 인류 역사의 모습을 압축한 것 같다. 인류 역사는 줄곧 모든 것에서의 독립을 향해 줄달음쳤다. “프랑스”혁명은 아버지 문을 차고 나간 순간이었고, 그후 산업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거쳐서 실존주의에까지 옴으로써 모든 권위에서의 자유에로 줄달음치고 있다. 그들의 외마디 소리는 “하나님은 죽었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나간, 즉 자기권리 추구의 결말은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대로 죽음에로의 존재 외에 아무 것도 아닌 처참한 자기를 발견했다. 이러한 세계상을 저 유명한 화가 “피카소”는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얼굴, 아름다움보다 추함이 정면에 노출된 진상, 아무런 통일 없이 파편처럼 조각난 세계상을 그려 폭로하고 있다. 조각난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쳤을 때 조각난 자기 얼굴에 당황한 현대인, 평화, 평화하면서 무기만을 장만하며, 인류의 행복을

위한 과학, 과학하면서 그 결과로 나온 핵무기 앞에 떨고 있는 인간 사회의 모순이 그것이다.

개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철이 들면 부모의 권위를 항거하고 뛰쳐나온다. 선생에 항거하고, 낡은 전통에 항거하고, 마침내는 사회질서, 국가의 법에 항거하므로 자기 생존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회질서의 파괴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거나, 감옥의 신세를 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고소하고, 법은 심판하며, 사회질서는 그들을 내버린다. 죄를 지은 자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 정의이다.

이것은 만아들의 입장과 같다.

기독교교회도 이 만아들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저들의 신념이 정당한가는 불문에 불이고라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의 입장에서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의감을 부르짖고 심판을 하는 너는 네가 심판하는 그와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잘잘못은 고하간에 곤궁에 빠진 이를 살리는 것 또는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네 본연의 할 일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의 태도는 예수의 가르친 “복음”의 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예수가 다른 어떤 성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는 바로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 제외된 자들, 즉 죄인, 세리, 창기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의 편에 섰다. 그는 범죄에 대한 분노보다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앞선다.

이러한 그의 근본적인 입장이 아흔아홉 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난다는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예수”의 태도와 행동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버지와 같은 뜻으로 믿기 때문이다. “예수”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

님이기 전에 용서의 하나님이며, 정의의 하나님이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를 배신한 아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분노는 죽었다 살아온 일, 잃어버렸다 도로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이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법과 의무의 관계에서 가지려고 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지려고 한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법을 다스리고 사회정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그것만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범법한 자에게 이제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가능성과 권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1966. 3.〉